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2] -동일 이슈 중복질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중심으로-

2016. 10.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김도연



1 20개 국회, 국정감사 동일이슈 중복 질의 실태

- 2016년 국회 국정감사는 위원회별로 다양한 쟁점사항이 예고되었음. 그러나 실제 2016년 상반기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와 증인 신문보다는 동일이슈에 대한 중복질의행태가 여전했음. 결과적으로 다른 중요한 이슈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음.
-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는 14명의 의원이 47건의 질의를 했으며 질의 중 43건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련된 것이었음. 이는 비율상 91%며,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한 질의나 다름없었음. 9월 29일 문화재청 등의 국정감사에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한 신문 비율이 60%였음(【표 1】참고).

**【표 1】 2016년 국감 단일이슈에 대한 중복
질의현황(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간: 2016.09.26.~10.7)

연번	감사위원 명	질의 횟수(건)	미르, K-스포츠 등 관련 질의 횟수(건, %)	비고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외				
1	김민기(더불어민주당)	3	3	
2	김병욱(더불어민주당)	3	3	
3	노웅래(더불어민주당)	4	4	
4	박경미(더불어민주당)	3	2	
5	손혜원(더불어민주당)	3	3	
6	신동근(더불어민주당)	5	5	
7	안민석(더불어민주당)	4	4	
8	오영훈(더불어민주당)	3	3	
9	유은혜(더불어민주당)	3	3	
10	전재수(더불어민주당)	4	4	
11	조승래(더불어민주당)	4	4	
12	송기석(국민의당)	4	3	
13	안철수(국민의당)	1	0	
14	이동섭(국민의당)	3	2	
계	14명	47	43(91%)	위원장 제외
2016년 9월 29일: 문화재청 외 8개 기관				

연번	감사위원 명	질의 횟수(건)	미르, K-스포츠 등 관련 질의 횟수(건, %)	비고
1	김민기(더불어민주당)	3	1	
2	김병욱(더불어민주당)	4	3	
3	도종환(더불어민주당)	3	1	
4	노웅래(더불어민주당)	3	3	
5	박경미(더불어민주당)	3	1	
6	손혜원(더불어민주당)	2	0	
7	신동근(더불어민주당)	3	3	
8	안민석(더불어민주당)	3	2	
9	오영훈(더불어민주당)	2	2	
10	유은혜(더불어민주당)	4	4	
11	전재수(더불어민주당)	3	2	
12	조승래(더불어민주당)	3	2	
13	송기석(국민의당)	3	2	
14	안철수(국민의당)	1	0	
15	이동섭(국민의당)	3	0	
계	15명	43	26(60%)	위원장 제외

※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 기준, 위원장 및 청가 의원 제외

2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언행 등 논란

- 국정감사에서 국감 내용과 무관한 질의,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증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꾸준히 지적되었음. 특히, 증인에게 최소한의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기 식의 신문 행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하였음. 일부 의원들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거나 논란이 되었음.
- 2016년 9월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한 의원은 조운선 장관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와 관련된 신문을 하면서 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그쳤음(<예시 1> 참고).

<예시 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2016.9.27): 미르재단, K-스포츠 관련

- 더불어민주당 000 의원(이하 의원) : 문제 있어요, 없어요?
 - 조운선 장관(이하 조운선) : 창립총회...
 - 의원 : 문제 있어요, 없어요?
 - 조운선 : 창립총회...
 - 의원 : 문제 있어요, 없어요?
 - 조운선 :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 의원 :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거죠?
 - 조운선 :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 의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
- 의원 : 재단 서류검토 영터리로 한 겁니까, 봐준 겁니까?
 - 조운선 : 김영수...
 - 의원 : 설명하지 마시고 재단 서류검토 영터리로 한 겁니까, 봐준 겁니까?
 - 조운선 : 설립자의...
 - 의원 : 설명하지 마시고 재단 서류검토 영터리로 한 겁니까, 봐준 겁니까?
-
- 의원 : 전경련을 고발할 겁니까, 봐줬다고 문체부가 책임질 겁니까?
 - 조운선 : 법률자문을...
 - 의원 : 설명하지 마시고 전경련을 고발할 겁니까, 봐줬다고 문체부가 책임질 겁니까?
 - 조운선 : 법률자문을...

- 2016년 9월 30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화장실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감 내내 감사 위원들의 신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음. 그러나 증인을 무시하는 듯한 질의 태도와 비아냥거림은 감사위원으로서는 적절한 태도라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 신문 사례는 <예시 2> 와 같음.

<예시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2016.9.30): 한국학중앙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000 의원(이하 의원) : 이승철이라는 분도 누군가로부터 추천하라고 소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이기동 원장(이하 이기동) :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원 :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그건 제가 차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원장님 추천 건으로 이

승철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중략)

○ 의원 : 새파란 젊은 것들 그런 표현들이 말하자면, **“빨갱이 정치인들이 빨갱이 야당들이”**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 이기동 : (국정화 교과서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역사를 설명하자)

○ 의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원장님께 교육받을 나이는 아니고요.**

○ 의원 : 정권 바뀌면 국정교과서 다시 씁니까?

○ 이기동 : 의원님, 연말에 가면 그래서...

○ 의원: **보면 이렇게 말할 땐 정상적으로 말씀 잘 하세요. 그런데 가끔 해까닥 해.**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 의원 : 기획처장님 계신가요?

○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 네

○ 의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장님은 좀 쉬고 계세요. 아랫것들이 할 테니까요.**

-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이 증인에게 일방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는가 하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발언을 무시하고 반박하는 사례도 있었음(<예시 3, 4> 참고)

<예시 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2016.10.6): 방송통신위원회 등

○ 정의당 000 의원(이하 의원): **자꾸 주무시는 것 같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 어떻게 생긴 지 아십니까? 지금 뭐 법령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계도 포기해가면서 평생 미디어운동에 바친 전국의 이 활동가들, 미디어단체의 활동단체들의 사업이었습니다. ...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서울에서 일하던 장애인이 지방으로 발령 났죠. 언론에 보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가 있는데 시청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이유로 발령을 내셨다고 해요. **맞아요? 기억이 안나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면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시청권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지금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만 사퇴해주시라고 강력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 증인: (묵묵부답)

<예시 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2016.10.7): 미래창조과학부 등

○ 더불어민주당 000 의원(이하 의원):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추진단 단장으로 센터의 설립, 추진 이런 것들을 관련...전경련 부회장이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왜 이런 걸 하죠? 센터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 사정을 많이 알고...공동단장이 차관이시던데 그 당시에...

○ 최양희 장관(최양희):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온 공무원입니다.

○ 의원: 이승철이라는 사람은 약방의 감초처럼...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 최양희: 민관합동...

○ 의원: 지역 연고로 할당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승철이란 사람은 여기 또 나와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겁니까? 하는 일이 뭐니까? 도대체.

-

○ 의원: 이승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모으는 건가요?

* 발언 마이크가 시간이 되어서 다 꺼지니까, “그거 좀, 말 안 해도 (시간을 좀) 원해주면 안되나요. 꼭

위원장이 해야 하나요?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합시다.”

○ 의원: 어마어마한 돈을 기업 17개가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미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답이 미진하면, 오늘 끝날 때까지, 12시까지 묻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이 정리하라고 하니, “정리 못하겠습니다.”**

- 이상에서는 일부의 사례만 소개했음. 국감에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신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 그러나 증인을 과도하게 몰아세우고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신문 행태는 사안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왜냐하면 과도한 증인 신문 행태는 그 자체로 국감의 주제가 되어 정작 규명해야 할 중요한 사안까지도 묻히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국정감사가 전반적인 국정의 실적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태도가 요구됨.